지역과 함께,
세계로 대전환

Together with the Region,
A Major Shift Toward the Global Stage

기독교 명문대학인 한남대학교는
지역을 이끌고 세계로 뻗어나갈
창의적인 인재를 배출합니다.

한남대학교 학생들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할것입니다.

한남대학교
Hannam University

Hannam University 오창동캠퍼스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대덕튤립캠퍼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46 *www.hannam.ac.kr*

HANNAM DREAM

HANNAM 2024 한남대 STORY MAY UNIVERSITY

한남대학교 소식지

2024 Spring **Vol. 39**



지역과 함께,
세계로 대전환

Together with the Region,
A Major Shift Toward
the Global Stage

한남대학교 소식지
2024 spring ● **Vol. 39**



한남대 탈메이지교양융합대학
앞에 활짝 핀 등나무

발행일 2024년 5월
발행처 한남대학교
발행인 이승철
편집인 장수익
글 · 사진 고상범, 김민영, 장효진
제작처 한남대학교 입학홍보처 홍보팀
www.hannam.ac.kr

이 책의 저작권은 한남대학교에 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글과 사진을 포함한 모든 내용은
저작권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 또는 전재될 수 없습니다.

STORY 1
한남대 핫이슈

04 한남대 2024 글로컬30
예비 지정 대학 선정

06 〈글로컬30 예비 지정 1〉
특화된 창업 경쟁력

09 〈글로컬30 예비 지정 2〉
지역 정주형 산업인력 육성허브

12 이승철 총장인터뷰
"지역과 함께 세계로 대전환!"
제18대 신임 이승철 총장

16 제24대 대전기독학원
곽충환 이사장 선출

STORY 2
한남대 사람들

18 수학과 유천성 교수의
'연구실 이야기'

20 수업평가 우수교원
미디어영상학과 유금 교수

22 모바일 게임 개발로 창업한
CAOX 서지웅 대표

24 한국전통 나물의 세계화를 꿈꾸는
(주)정화FS 박주수 대표

STORY 3
한남대 소식

26 영화 '서울의 봄'으로
핫플레이스 된 한남대,
영화 촬영은 계속된다.

28 중앙열람실 HUME L2을
소개합니다.

30 창업명문,
취업명문 꿈꾸는 한남대

32 한남대,
세계 최대규모 '소비자 가전 전시회'
돋보이는 성과

34 주목받는 우리학과
'자유전공학부' 자랑







한남대 2024 글로컬30 예비 지정 대학 선정

한남대 대전지역 사립대 유일
'글로컬대학30' 예비 지정 선정,
한국 대표 K-스타트업 밸리로의 대전환



한남대학교가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글로컬대학30 예비 지정' 대학으로 선정됐다. 본교는 우수한 창업 인프라와 특화된 창업 교육 역량을 토대로 지역발전전략(스타트업 타운 조성)과 연계한 'K-스타트업 밸리' 대학 모델을 단독으로 제출했다.
글로컬대학30 사업의 근본 의미에 부합한 한남대의 계획은 대전지역 사립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예비 지정 대학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대전지역에서는 한남대를 비롯해 충남대-국립한밭대, 대전보건대가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 대학으로 선정됐다.



① 4개 혁신전략과 10개의 혁신과제

한남대는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 정주형 스타트업 인재 양성 고등 · 평생 교육기관으로 도약하고, 세계로 대전환하기 위해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4개의 혁신전략과 10개의 혁신과제를 수립했다.

첫 번째 혁신전략은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시스템을 대전환하는 '대학 혁신전략'이다. 이를 위해 입학에서 졸업까지 수요자 기반의 인재를 양성하고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간 대학과 지역 간의 경계가 없는 지역일체형 교육 추진을 혁신과제로 설정했다.

두 번째 혁신전략은 글로벌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글로벌 혁신전략'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융복합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체계를 갖추는 글로벌 창업특구 및 창업지원 허브 조성과 한남대를 비롯한 해외 6개국의 대학(미국, 일본, 필리핀, 태국, 파키스탄)이 공동으로 글로벌 창업 연합대학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 6개 대학이 공동 단과 대학을 만들어 공동 창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공동 학위를 주는 체제다.

세 번째 혁신전략은 지역 정주형 산업인력 육성 허브를 만드는 '로컬 혁신전략'이다. 오정동 캠퍼스에 들어서는 캠퍼스혁신파크 옆에 청년 창업 주거단지를 신축하고 대덕밸리캠퍼스에 대전바이오 창업원과 연계하는 한남스타트업 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대전지역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해 대전지역 취업과 창업을 위한 지역 특화 인재 육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네 번째 혁신전략은 지속가능한 성과관리 및 재정 투자 혁신을 위한 '운영혁신전략'을 내세웠다. 글로컬대학운영을 총괄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Hannam Glocal Initiative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사회 성과관리 실현을 위한 개방형 AI기반 성과관리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1. 2024년 완공예정인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는 전국 최초의 캠퍼스내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될 전망이다.

2. 대학 구성원의 창업을 설계하는 한남 메이커스페이스. 학생들은 이곳에서 창업을 위한 아이디어 구상과 창업 아이템을 개발한다.

3. 한남대는 대학 내 각종 창업관련 학사제도와 인사제도를 운영 중이며, 창업관련 특성화교육을 진행 중이다.

② 글로컬대학 지정을 위한 어떤 노력 기울이나?

한남대는 글로컬대학 사업을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지방 공기업과 함께 5년간 약462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행한 모든 성과가 가능하도록 '한남홀딩스'라는 합작법인을 설립해 지역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는 지역대학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다.





예비 지정 대학들을 대상으로 지자체, 지역산업체와 실행계획을 수립해 지자체가 총괄 제출하면 오는 8월 글로컬대학 본지정 대학이 결정된다.

한남대 이승철 총장은 "한남대가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지역과 함께 세계로 대전환! 한국 대표 K-스타트업 밸리로의 대전환'의 비전과 혁신전략, 혁신과제는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큰 비전으로 시작했다"며 "글로컬대학 실행계획서 준비를 위해 대학 구성원 모두의 역량을 한곳에 모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대학이 잘해왔던 분야를 더욱 발전시켜 최고의 대학혁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Glocal

Glocal 30 hannam university

글로컬
30
예비 지정

특화된
창업 경쟁력

한남대가 글로컬대학30을 위해 글로벌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글로벌 혁신전략을 내세웠다. 한남대의 창업 현황과 창업인프라, 창업중심대학 네트워크 등의 수준은 어디까지 와있을까? 결론부터 제시하면 한남대의 창업 인프라와 경쟁력은 독보적이다.



1 전국 최상위권 창업교육



한남대의 창업 분야 육성은 지난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하는 창업보육센터지원사업을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2012년 ~ 2018년까지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에 선정됐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초기창업패키지사업을 진행 중이며, 2020년 캠퍼스혁신파크 선정, 2021년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선정 이후 지난해 대형국책사업인 창업중심대학(2023 ~ 2028)에 선정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매일경제 대학창업지수를 살펴보면 한남대는 지난 2019년 전국 4위, 충청권 1위였던 성적이 매년 상승했다. 2020년도 전국 3위를 거쳐 지난 2021년에는 전국 2위에 올라섰다. 한남대는 체계적인 창업교육과 인프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기준 한남대 학생들이 재학 중 수강할 수 있는 창업강좌 수는 139과목에 이르며, 학내에 창업동아리 수만 87개 팀에 이른다. 학생창업자 수는 25명, 교원창업자 수는 20명에 이른다. 수치의 변화는 더욱 파격적이다. 지난 2021년 창업기업 수가 22개에 그치던 것이 지난해에는 82개에 이르며, 매출액도 58억원(2021년)에서 지난해 718억원으로 10배 이상 뛰었다. 고용인원은 52명에서 150명으로, 투자금은 4억5000만원에서 16억원으로 올랐다.

한남대는 대학 내 각종 창업 관련 13종의 학사제도와 인사제도를 운영 중이며, K-MOOC를 비롯한 캡스톤디자인, 마이크로디그리, 디자인팩토리 등 창업 관련 특성화교육을 진행 중이다. 한남대 재학생이라면 '기업가정신' 교과목을 교양필수로 이수하도록 하는 등 창업 관련 교육에 진심인 대학이다.

1. 대학 구성원의 창업을 설계하는 한남 메이커스페이스. 학생들은 이곳에서 창업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구상과 최첨단의 창업 아이템을 개발한다.

2. 경상대 후문 대학로에 개방된 '한남창업존'은 교수와 학생창업자가 매장을 직접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컨테이너형 매장이다.

3. 한남대는 2023년 창업중심대학 주관기관에 선정되어 5년간 41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2

지역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한남대학교 창업지원 인프라

한남대는 대학 전역에 창업 인프라가 조성돼 있다. 디자인팩토리와 메이커스페이스는 창업 실습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시제품 제작 공간으로 운영 중이다. H창업허브 A동은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 중이며, H창업허브 B동은 창업팀의 아이템 구체화와 사업화에 필요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창업기업입주 공간인 창업보육센터는 전국 최대 규모이며 입주기업 수가 250개에 이르고 있다.

학생들이 대학에서 창업교육을 받고 동아리를 통해 아이디어를 발굴했다면 실전 창업을 해볼 수 있는 H창업마켓에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24개의 창업매장이 마련돼있으며, 학생과 교원이 실전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남대는 창업을 통한 성장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장분석 등을 지원하는 컨설팅 프로그램과 해외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미팅 지원 글로벌 프로그램, 지식재산권교육과 특허출원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대기업 등과의 네트워킹과 상담 지원을 위한 투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시장분석 80건, 글로벌진출 4개사, 지식재산권 등록 20건, 창업기업 8개사가 투자를 받는 성과를 냈다.

이 밖에도 창업 유관 기관 네트워킹과 창업페스티벌, 창업중심대학 간 성과보고회, 글로벌 네트워킹 등의 창업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4.
한남대 캠퍼스에 조성된
창업 인프라 전경,
학생들이 창업교육을 받고
실전 창업을 해볼 수 있는
창업마켓으로 24개 창업매장이
마련돼 있으며, 학생과 교원이
실전 창업을 할 수 있다.

Global 30 hannam university

글로컬
30
예비 지정

지역 정주형 산업인력 육성허브

한남대는 앞으로 100년을 위한 '한남스타트업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남대 대덕밸리캠퍼스와 오는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캠퍼스혁신파크를 2개의 축으로 캠퍼스의 대전환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산학협력 지역 거점 대학으로 오는 2025년 대학 내에 300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하고 대학과 지역 산업의 융합모델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2



1 국내 최초 대학 내 국가산업단지 들어서는 캠퍼스혁신파크 '순항 중'

한남대는 지난 2019년 강원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와 함께 1차 캠퍼스혁신파크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한남대는 학교 내에 건축면적 4400㎡의 지상 7층(A동), 지상 4층(B동)의 '산학연혁신허브동'을 오는 12월 완공 예정이다.

전국 최초의 캠퍼스 내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될 전망이다. 창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학의 혁신역량을 모아 탄생하는 캠퍼스혁신파크는 산업시설용지와 복합용지(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공원, 주차장, 도로) 등으로 구성된다. 예비창업 공동입주 공간과 기업입주 공간, 상가, 메이커스페이스, 미디어룸, 스튜디오, 영상편집실, 세미나실 등이 들어서며 입주 업종은 바이오화학분야, 컴퓨터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 영상제작, 의료정밀 광학기기 제조업 등 ICT, 금속가공제품과 자동차 및 운송장비 제조업인 기계 · 금속분야, 지식서비스 분야 등의 기업체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남대와 대전시는 캠퍼스혁신파크의 대덕연구개발특구 편입을 추진중이다.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 입주기업들이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남대는 복합용지 내에 행복주택 건립도 추진 중이다. 대전시 라데팡스 프로젝트로 대학생과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행복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남대는 청년창업 주거단지 건립과 함께 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물 산업 산학협력 창업센터 건립도 논의 중이다. 캠퍼스혁신파크는 생산유발효과 2.13조원, 고용효과 6714명을 기대하고 있다.

1.
지역과 함께, 세계로 대전환!
한국 대표 K-스타트업
밸리로의 대전환
한남 글로컬사업 추진전략

1

VISION

지역과 함께, 세계로 대전환!
한국 대표 K-스타트업 밸리로의 대전환

목표

1. "지역과 함께" 지역 정주형 스타트업 인재 양성 고등/평생 교육기관 도약
2. "세계로 대전환"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K-스타트업 밸리 - 한남대학교

대학 혁신전략	글로벌 혁신전략	로컬 혁신전략
EtoE 수요기반 인재양성	창업특구/창업지원 허브 조성	한남스타트업밸리 조성
지역일체형 교육	글로벌 창업 연합대학 체제 구축	지역특화 인재 성장 및 정주 역량 강화
		지역 기업 정주 역량 강화

운영 혁신전략

한남 글로컬 Initiative 거버넌스 혁신	개방형 AI기반 성과관리 플랫폼 구축	지속가능 혁신 성장을 위한 재정 구조 혁신

투자 계획

한남대학교 글로컬 사업 성공을 위한 대학-중앙정보-지자체-국가-지방공기업 공동 투자

5년간 4621억원 투자

2 대덕밸리캠퍼스와 대전바이오 산업단지

한남대 대덕밸리캠퍼스는 지난 2005년 조성 이후 바이오분야 특화 캠퍼스로 자리를 굳혀오고 있다. 대전시가 특화산업으로 앞세우는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지난해 한남대는 대덕밸리캠퍼스부지 일부에 대전시 바이오창업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부지를 제공한 상태다.

미국의 보스턴 랩센트럴의 한국형 모델인 바이오창업원은 451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부터 바이오 창업의 혁신 거점으로 본격 운영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특화단지 공모에 도전장을 냈으며, 한남대의 대덕밸리캠퍼스도 바이오 집약단지로 역할을 수행중이다. 한남대는 바이오메디컬대학 운영과 대전바이오창업원, 대전바이오산업단지와 창업집적타운까지 포함해 1만평 규모의 한남국제창업샌드박스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한남대 원구환 기획처장은 "지역특화 산업의 세계화를 견인하고 체제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한남스타트업밸리는 대덕밸리캠퍼스와 캠퍼스혁신파크를 중심으로 기업육성 연간 300개, 산학연 공통 R&D 100건, 청년외국인 지역 정주 향상율 30%를 목표로 지역정주형 산업인력 육성 허브를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
로컬혁신 혁신과제
한남스타트업밸리 조성
안내도

2

로컬혁신 | 혁신과제 1 한남스타트업밸리 조성









〈편집자주〉 지난 3월 1일 한남대학교 신임 수장으로 새로운 미래 4년을 이끌어갈 이승철 총장(제18대)이 취임했다.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등 대학 재정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승철 신임 총장은 "어렵다고 말하지 않겠다. 대신 재정 수입원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기금을 확보하고 수익 창출형 캠퍼스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승철 총장은 지난 3월 18일 총장 취임식에서 개교 70주년 준비 발전기금 캠페인 '1호'기탁자로 2억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쾌척하기도 했다. 최근 교육부가 선정하는 '글로컬30' 예비 지정 대학으로 선정되면서 이 총장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한남대의 100년 발판을 만들어가겠다는 이 총장의 포부를 들어봤다.

"지역과 함께 세계로 대전환!" 제18대 신임 이승철 총장

글로컬30 예비 지정 선정, 새로운 비전 제시

interview


1



2

Q 한남대 18대 총장으로 귀한 역할을 맡게 됐다. 취임 소감은?

A

한남대학교에서 32년간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해 왔다. 봉직 기간동안 학장과 대학원장, 기획처장 등 학교 일을 하면서 한남대의 잠재력과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됐다. 잠재력을 바탕으로 우리 대학을 명문대학으로 성장 발전시키고 싶다는 포부로 오랜 시간 노력해 왔고 총장이 됐다.

대학의 발전은 총장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어렵다.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획력을 강화하고 학내 구성원과 함께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려 한다.

우리 대학은 앞으로 학구적인 학풍과 기독교 정신의 실천을 통해 모든 구성원들이 당당하게 '한남대학교'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명문대학으로 거듭날 것이다.

1. 이승철 총장은 한남대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명문대학으로 성장 발전시키고 싶다는 포부로 오랜시간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2. 이승철 총장이 교정에서 한남대학교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소통하고 있다.

Q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이 위기를 맞고 있다.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보나? 해결방안이 있다면?

A

국내의 지방 대학들이 많은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잘 알고 있다. 14년간의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감소 등의 난제 속에서 대학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지 못하면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방대학들이 매년 퇴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퇴출이 점점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라이즈 사업, 글로컬30 사업 등 정부정책은 지방대학 육성이 목표라고 하지만, 이면은 대학 구조조정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학의 총장으로서 우리 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 위기가 곧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현재의 시험을 넘기면 오히려 우리 대학의 새로운 도약과 혁신을 위한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어려움의 끝은 올 것이고 위기를 기회 삼아 모든 대학 구성원들이 공동체적으로 협력해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모든 구성원들의 공동체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성원들에게 명확한 비전과 신뢰를 제시하고,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결집해 역량을 모아가려 한다. '선한 청지기' 정신으로 겸손하며 상호 협력의 자세로 어려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 다짐을 매일 하고 있다.



2

Q 취임사를 통해 "세계로 나아가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셨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있다면?

A 총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지역과 함께, 세계로 대전환'이라는 비전을 발표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첫번째로, 오정동 캠퍼스의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26년 신입생 모집을 목표로 한국 최초로 '글로벌 창업 연합대학체제'를 출범시키려 한다. 미국과 일본, 필리핀, 태국, 한남대 등 해외의 기독교대학을 중심으로 공동 단과 대학을 만들어 공동 창업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두번째로, 우리 대학은 21세기형 융복합교육체계인 디자인팩토리를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 성심당, 수자원공사 등 지역기업들과 다양한 학과 학생들이 해외 대학들과 함께 공동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제품을 개발해내는 프로그램이며 지금까지 60건의 특허출원, 국책사업 교육혁신 우수사례 선정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혁신적인 글로벌 융복합 체계인 디자인팩토리를 두 배로 확대하는 동시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도 대대적으로 확대해 글로벌 대학 체제로 키워 나가고자 한다.

이밖에 대덕밸리 캠퍼스를 수익창출형 스타트업 캠퍼스로 전환 하려 한다. 대전시 전략산업인 바이오메디컬 중심의 캠퍼스로 전환하고 지산학연 융합체제를 운영해 나가려 한다. 외국계기업, 국내기업, 정부출연연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상용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Q 사립대 대부분이 등록금에 의존해 운영되는데 재정확충 방안은 있는가?

A 등록금 의존도를 줄이고 재정 수입원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기금을 확보하고 수익 창출형 캠퍼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창업중심대학과 캠퍼스혁신파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는 올해 12월 캠퍼스 안에 국가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전국 최초의 대학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캠퍼스혁신파크에 전략산업과 첨단산업분야의 엄선된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생산유발효과 2조원, 고용유발효과 6700여명을 기대하고 있다.

대전 산업 발전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발휘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Q 역대 지역 총장 중 최고액인 2억원을 발전기금으로 쾌척했다. 발전기금 쾌척 배경과 의미는?

A 2026년 한남대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이한다. 70년의 시간 동안 지역민과 함께 발전해온 한남대학교의 앞으로 100년을 위해 '지역과 함께, 세계로 대전환을 위한 100인의 기부' 운동을 시작하려 한다.

대학의 특성화 글로벌 프로젝트 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위한 동력이 필요하고, 저의 작은 기부가 시드머니가 돼서 한남대의 발전을 위한 기부금들이 모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캠페인을 펼치게 됐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헌신했던 설립 정신을 이어받아 10만 동문과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목표는 오는 2028년 2월까지 제임기 동안 100인의 기부자들의 마음을 모아 한남대의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려 한다.



3

2. 벚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교정에서 이승철 총장이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가졌다.

3. 이승철 총장은 한남대의 발전을 위한 기부금들이 모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2억원을 쾌척했다.



Q 최근 한남대학교가 글로컬30 예비 지정 대학에 선정됐다. 의미와 소감은?

A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 선정 결과는 한남대 구성원은 물론, 대전의 지역주민과 함께 기뻐하고 싶다. 지난 3월 총장에 취임한 후 짧은 시간에 준비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지만, 한남대 구성원이 총력을 다해 이번 신청서를 작성했다. 특히 대전시와 한남대 동문 기업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감사한 마음이 크다.

더욱 감사한 것은 올해 글로컬대학 사업에 대전지역에 4개 대학이 예비 지정 대학에 포함되었는데, 한남대가 대전지역의 사립대학 중 유일하게 단독형으로 선정됐다. 대전지역 사립대학의 명예를 걸고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다. 한국대표 K-스타트업 밸리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겠다. 본지정까지 지역사회와 지자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학부모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지를 이끌어낼 것이다.

※ 프로필 : 이승철 총장은 중앙대 행정학 학사 · 석사와 독일 Konstanz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88년 한남대 교수로 부임했다. 한남대 사회과학연구소장, 이부대학장, 기획조정처장, 사회과학대학장, 사회문화 · 행정복지대학원장, 국방전략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혁신평가위원, 병무청 자체평가 심의위원, 육군 · 해군 · 합참 발전자문위원, 아데나워 학술교류회 회장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펼쳐왔다. 이 총장은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과 다양한 세미나 및 협력사업을 주관했으며, 독일 통일 직후 첫 총선 현황 참관과 동독지역 시찰을 위한 독일 Konstanz대학 객원교수, 독일 함부르크대학 유럽연구소 객원교수,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초청 독일 베를린 도시발전연구원 등 '독일 행정 전문가'로 다양한 국제 활동을 해왔다.

제24대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곽충환 이사장 선출

본교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의 제24대 이사장에 곽충환 이사가 취임했다. 지난 2월 대전기독학원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임 이사장에 곽충환 이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곽충환 이사장(사진 왼쪽)은 한남대 영어영문학과 동문으로 서울 나눔의 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하고 있다. 곽 이사장은 지난 2017년부터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남대 출신 목회자 모임인 한목회 회장을 맡고 있다. 한남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 이후 장로회신학대학 신대원을 졸업했으며, 광운대 겸임교수로도 활동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정치부장, 신학교육부장, 감사위원, 함해노회장 등을 역임했다.

곽 이사장은 지난 3월 14일 한남대 성지관에서 이승철 총장과 함께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이사장 활동에 돌입했다.

곽 이사장은 지난 4월 3일 교직원 예배에 참석해 이승철 총장에게 발전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곽충환 이사장은 수년 전부터 매년 500만원씩 한남대에 대한 사랑을 이어왔으며, 지금까지 누적 금액이 5500만원에 이른다.


1

곽 이사장은 "한남대와의 인연은 대학 입학을 시작으로 40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 늘 한남대를 마음에 품고 살아왔다"며 "발전기금은 적은 금액이지만 후배와 모교를 위해 뜻깊게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매년 조금씩 기부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한남대가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을 잘 지켜내고 녹록지 않은 대학 현실에 생기가 돌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

1. 곽충환 이사장(사진 왼쪽)은 지난 3월 14일 한남대 성지관에서 이승철 총장과 함께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이사장 활동에 돌입했다.
2. 곽충환 이사장(사진 왼쪽)은 수년전부터 매년 500만원씩 한남대에 대한 사랑을 이어왔다.
3. 한남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이후 장로회신학대학 신대원을 졸업, 광운대 겸임교수로도 활동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정치부장, 신학교육부장, 감사위원, 함해노회장 등을 역임했다.

곽충환 이사장이 구성원께 보낸 편지

하늘 소망은 간직하되, 땅의 수고를 붙잡을 때 우리 한남대학교에는,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세운 기독 사학의 설립 정신이 스며들듯 흐르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몸짓으로 자태를 봄내는 캠퍼스에는 젊음의 환희가 흘러납니다. 건축되고 있는 캠퍼스 혁신 캠프의 자태가 활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녹록찮은 대학 현실에, 학교 위한 마음 다지는 교직원들의 섬김이 아름답습니다. 생기를 머금은 재학생들의 힘찬 미소에 희망찬 앞날을 기약해봅니다. 10만여 졸업생들도 한남대 도약에 당당한 한 몫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걸어온 자취마다 의미 없는 발걸음이 없는 바, 가파른 변화의 시대에 68년의 연륜이 오늘의 한남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온 길보다 갈 길이 더 먼 것이 대학의 현실입니다. 하늘 소망은 간직하되, 땅의 수고를 굳게 붙잡아야할 때입니다.

좋은 소식도 들려옵니다. 입학률도 그렇고, 글로컬대학 30 예비 지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입학률 역시 올해엔 또 다를 것이며, 글로컬 30도 본 지정에 들어가기까지 매어야할 허리띠는 여전합니다.

이제 바라기는 어찌하든, 우리 대학의 정체성인 창학정신을 맑게 지키고, 어려운 대학 현실과 재정에도 숨통을 열고, 인성과 실력 있는 인재를 잘 키우려합니다. 그 일을 이루도록 학교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진정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을 찾아내 힘을 모으고, 끝내는 '세계로 대전환'의 한남대가 되도록 애 쓰겠습니다.

겨울은 결코 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학에도 시대의 봄이 한껏 무르익었습니다. 이제는 '서울의 봄'이 아닌 '한남의 봄'으로 세상을 가득 채워갑시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변함없이 한남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3

PROUD OF HANNAM PEOPLE



YOO CHEON SEONG 5★

수학과 유천성 교수의 '연구실 이야기'

'세계에서 논문이 가장 많이 인용된 과학자 TOP 2%'
'SCI급 논문 431편' '연구업적 우수교원'
한남대학교 수학과 유천성 교수가 이뤄낸 실적들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3대 인명사전인
미국의 마르퀴즈 후즈후, 인국인명정보기관(ABI),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에
모두 등재되며 수학분야의 국제적 선도연구자로
손꼽히고 있는 유 교수의 업적들은
모두 노력의 결과물이다.



'밤 10시 이전에 연구실 불을 끈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고 회상하는 유 교수는 '천재형'이 아닌 전형적인 '노력형' 수학자다. 길을 걸으면서, 식사를 하면서도 곰곰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머릿속에 넣고 생각하는 습관이 자리 잡은지 오래다. "해결하지 못했던 어려운 수학문제라도 지속적으로 생각하면 순간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아냅니다. 연구실에 있지 않아도 언제나 생각할 수 있는 수학은 어렵지만 희열이 있는 학문입니다"

지난 2002년 한남대에 부임한 이후 23년간 한남대에서 수학을 가르치며 학생들과 함께해온 유 교수는 대전지역과의 인연이 전혀 없다. 단순히 교수모집 공고에 보인 '세례증명서를 제출해야 교수로 임용될 수 있다'는 조건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유 교수를 한남대로 이끌게 된 계기가 됐다. "23년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연구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학교의 분위기와 여건에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순수수학을 전공했지만, 유학 과정에서 응용수학으로 전향한 유 교수는 컴퓨터 공학의 기초가 되는 코딩과 C언어 등의 수학적 응용학문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AI(인공지능) 기반의 수학과 빅데이터 등의 연구도 이어가며 학생들의 진로 모색과 방향 전환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실천하고 있다.

유 교수는 현재 인공지능 기반 수학 교과서를 집필 중에 있으며, 학생들에게 가르칠 예정이다. "수학을 배워서 어디에 쓰냐는 말을 많이 하지만, 수학 없는 현실은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 수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높아지고 있고 수학자들의 수요가 엄청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컴퓨터 그래픽, 항공기 · 반도체 칩설계, 금융파생상품, 위성통신, 디저털이론, 교통문제, 화학, 정보통신까지 사용되고 있다. 미국 금융계의 중심가인 월스트리트에서 해마다 수많은 수학자를 채용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변동을 최대한 수학공식을 활용해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다.

유 교수는 매년 연간 10편 가량의 논문을 지속적으로 쓰고 있다. 해외 수학자들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활발한 저서 활동도 진행 중이다. 지난 2019년 'Polynomials: Theory and Application'를, 2020년 'Number Theory and Its Applications', 2022년 'Simulation Modelling' 등 3권을 연속으로 출판했으며, 이 책들이 수학을 연구하는 학생들과 학자들에게 1만회 이상 다운로드됐다. 유 교수는 지금까지 20여 권의 저서를 저술했다. 유 교수의 저서들은 2500여명 이상의 학자들이 콘텐츠를 읽고 인용했으며, 관련 연구 분야에서 인용되고 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자"
라는 좌우명을 가진 유 교수는
"수학은 처음부터 잘하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노력하면 언젠가는
잘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마라톤이 꾸준히 한걸음씩 쌓여서
42.195km를 완주할 수 있듯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유 교수의 모습이 진정한 '스승'이다.

PROUD OF HANNAM PEOPLE



YOO GEUM 5★

수업평가 우수교원 미디어영상학과 유금 교수

"사회문제 해결형 프로젝트를
학생들과 같이 풀어가며, 교수가 아닌 막내삼촌 같은
친근감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해요."

한남대 아트&디자인테크놀로지대학 미디어영상학과 유금 교수는 2023학년도 혁신적 교육모델 우수교원 심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한남대는 매년 전년도 우수 교원을 선정해 포상한다. 수업운영사례보고서(교수법, 학생참여도, 수업개선 노력 및 결과, 수업계획 및 수업자료)와 학생들이 직접 평가한 수업평가 결과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며, 유금교수는 합산점수 90.76점으로 최고의 우수교원으로 선발됐다.

유 교수는 지난 2013년 한남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로 임용됐다. 박사학위 이후 유 교수는 디자인 에이전시와 삼성전자 CNB 디자인연구소 등 현업에서 근무한 실무경험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의 실무경험은 학생들과 디자인씽킹 수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전공 수업은 학생들이 사회문제에 대한 소재를 찾게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소셜디자인의 형태로 예를 들어 치매노인 예방, 가정내 안전 서비스 개발 등이 소재가 된다. 학생들은 현장에서 낯은 자세로 의견을 수렴하고 고충을 수렴한다. 이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만들어내고 학생들이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필요성을 투입해 직접 이를 위한 해결 방법을 만들어내는 형태다.

이러한 디자인씽킹 기반의 수업들은 한남대 미디어영상학과가 디자인전람회 서비스경험분야 최대상 수상 보유학과로 유명세를 떨치는데 기여했다. 한남대 미디어영상학과는 40개의 상을 수상했고 2014년에는 20개의 상 가운데 9개 상을 휩쓸기도 했다. "수업이 다소 어렵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지만 학생들 스스로가 문제해결을 하고 나면 자신감을 갖고 다양한 도전을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유금 교수의 전공 수업 방식은 디자인팩토리 수업 운영 방식이기도 하다. 디자인씽킹을 기반으로 한 기업체에서 의뢰한 문제 해결 솔루션이 디자인팩토리 수업이다.

유 교수는 현재 디자인팩토리 센터장이자 XR센터 센터장, 교원 창업을 통한 '핵사 디자인 스튜디오(HEXA DESIGN STUDIO)'의 대표까지 1인 다역을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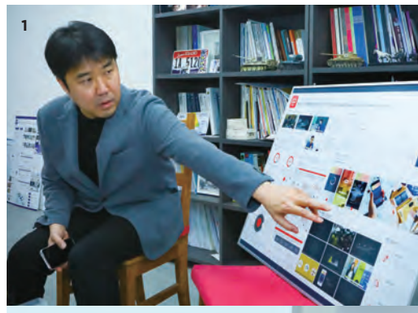
유 교수는 학생들과 격의없이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학생들에게 연구실에 언제든 찾아와서 막내삼촌처럼 부모님처럼 고민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해요. 학생들이 연구실 소파에서 울기도하고, 떠들기도 하면서 마음을 열어주면 학업뿐 아니라 인생선배로서 작은 도움을 줄수 있어서 기쁘죠." 덕분에 미디어영상학과 분위기가 매우 가족적인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유 교수는 '소리를 이용하는 자동 유지 공급장치'와 '알러지 관리시스템', '장기 입원환자를 위한 상생형 재능기부 어플 제공시스템' '무선 공유기를 내장한 애드벌룬' 등 6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회안전망 시스템에 사용하는 독거노인(시니어) 생활 안전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UI&UX 및 서버 개발」,「2022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사업」, HEXA DESIGN STUDIO,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 소셜 큐레이션 커머스 시스템 개발」 사업 등에 선정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
지난 2013년 한남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로 임용된 유 교수는 디자인 에이전시와 삼성전자 CNB 디자인연구소 등 현업에서 근무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씽킹 수업으로 2023학년도 혁신적 교육모델 우수교원 심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2.
유 교수는 현재 디자인팩토리 센터장이자 XR센터 센터장, 교원 창업을 통한 '핵사 디자인 스튜디오 (HEXA DESIGN STUDIO)'의 대표까지 일인 다역을 맡고 있다.

1



2



PROUD OF HANNAM PEOPLE



SEO JI UNG 5★

모바일 게임 개발로 창업한 CAOX 서지웅 대표

"모바일 게임 매출 20위권 안에 들어가는게 목표입니다.
단순 개발에 그치지 않고 창업과 성과를 내기까지
학교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한남대 최초 모바일 게임을 정식 출시한 'CAOX' 서지웅 대표(컴퓨터공학과4)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게임개발을 시작해 지금은 7개의 게임을 개발해 낸 개발자이며 동시에 회사 대표다.

1 · 2
서 대표가 정식 출시한 '모여라 친구들' 게임은 귀여운 캐릭터 동물들이 출연한다. 10대 학생들부터 여성, 50대 중년까지 캐릭터를 통한 게임을 선호하며, 출시하자마자 다운로드 횟수가 5000회를 넘어섰다.

게임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던 서 대표는 게임 프로그래밍을 독학했다. 책 한 권을 사서 직접 실습해 가면서 만들기 시작했다. 주위의 도움을 받고 싶었지만 시골 지역에 거주하던 그에게 도움을 줄 만한 전문가가 없었다. 그는 전문적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고, 한남대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하게 됐다.

"한남대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해 게임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지식을 쌓았는데 창업분야와 사업은 완전 다른 세계였습니다. 창업과 사업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없었던 제가 창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남대 이노폴리스사업단과의 인연 때문이에요" 게임 개발이 가장 기본이라면 이를 마케팅하고 사업으로 변화시키는 복잡한 과정을 사업단과 함께 준비했다. 마케팅 비용을 지원받고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이 경영과 기술자문, 투자분야, 특허분야 등 부족했던 분야를 적극 채워나갔다.

서 대표는 이노폴리스사업단의 도움으로 회사를 창업했으며, 현재는 7명의 팀원과 회사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컴퓨터공학과, 융합디자인학과, 린튼글로벌스쿨 등 전공도 분야도 다양한 개발팀을 꾸렸으며, 게임 스토리와 디자인, 캐릭터 개발, 게임 기술력 개발 등 각자 분야의 재학생들과 함께 게임을 개발해 내고 있다.

정식 출시한 '모여라 친구들' 게임은 귀여운 캐릭터 동물들이 출연한다. 10대 학생들부터 여성, 50대 중년까지 캐릭터를 통한 게임을 선호하며, 출시하자마자 다운로드 횟수가 5000회를 넘어섰다. 서 대표가 2017년 개발한 '세계정복'이라는 게임은 15만회 다운로드 된 저력을 갖고 있다. '모여라 친구들' 게임은 구글플레이 게임 피처드에 선정됐다. 피처드는 구글플레이가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정을 받은 게임을 스토어 피처링 타이틀 영역에 노출하는 것을 말한다. 대기업과 게임 개발자 상당수가 피처드 선정으로 위해 노력하는 만큼 이번 피처드 선정은 값진 결과다. 지난 3월 21일부터 구글 피처드가 시작됐다. 대학재학 3학년에 창업을 한 서 대표는 1학년 신입생들에게 창업수업을 통해 창업 경험담을 들려주는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게임 개발은 재미있지만, 시장에 출시하고 매출을 일으키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사소한 과정 모두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서 대표는 하루 4시간 게임과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다. 한남대 재학생들이 팀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힘으로 디자인과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다는 뿌듯함이 크다.

그는 "회사를 창업하고 이윤을 창출한다는 것은 막막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다"며 "미래에 대한 고민은 끊이지 않지만 창업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PROUD OF HANNAM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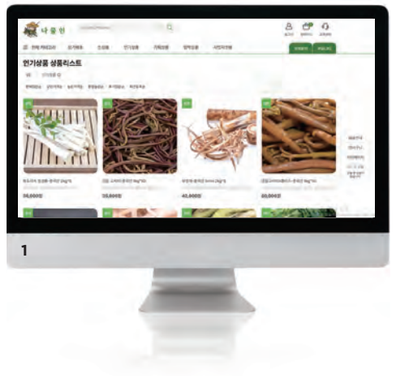


PARK JU SU 5★

한국전통 나물의 세계화를 꿈꾸는 (주)정화FS 박주수 대표

"한국 전통 나물의 세계화를 꿈꿉니다!"
한남대 경제학과 3학년 ㈜정화FS 박주수 대표
'나물인' 스마트스토어 플랫폼 개발, 창업 첫해 3억6000만원 매출

음식점을 창업하시는 분들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컨설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

1.
'나물인(www.namulin.co.kr)' 에는 사업자들을 위한 대용량 상품을 비롯해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포장 나물과 신선야채, 정기 배송 프로그램, 제철 나물 요리법 등 트랜디한 정보가 가득하다.

2.
농산물 스마트스토어 플랫폼 '나물인(www.namulin.co.kr)'을 운영하고 있는 한남대 경제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박주수 학생


2



한남대 경제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박주수 학생은 농산물 스마트스토어 플랫폼 '나물인(www.namulin.co.kr)'을 운영하는 ㈜정화FC 대표다. 플랫폼에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을 위한 대용량 상품을 비롯해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포장 나물과 신선야채, 매일 아침 신선하게 정기 배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제철 나물 요리법까지 트랜디한 정보가 가득하다.

국내산, 수입산 나물은 물론 쌈 채소, 콩류, 버섯, 과실, 기타 식자재까지 취급 품목도 다양하다. 인스타와 블로그를 통해서 신규 상품을 소개하고 조리법, 나물의 효능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박 대표가 전통 나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어머니 때문이다. 박 대표의 어머니는 20여 년 간 중간상인들을 위한 나물을 수입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 중이었고,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받아야 했던 박 대표는 남는 시간을 활용해 어머니의 사업을 도왔다. 박 대표는 당시 충북대에 재학 중이었으나, 한남대가 운영하는 이노폴리스사업단과 인연을 맺으면서 전문적인 창업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된다.

그는 "2022년 이노폴리스사업단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식자재 품목을 확대하고, 정기 배송 프로그램 개발, 포장재, 플랫폼 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배우게 됐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한남대 이노폴리스사업단과의 인연으로 2023년 어머니로부터 독립해 '나물인' 플랫폼으로 창업을 시작했다.

"처음 창업을 하려다 보니 사업자등록증 내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이노폴리스 사업과 한남대 창업중심대학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 선정되면서 홍보 방법, 제품 패키지 디자인, 플랫폼 제작 등 전 분야의 지원을 받았어요"

박 대표는 지난해 창업 첫해 3억6000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그는 한남대가 창업에 '진심'이라는 생각이 들어 충북대를 그만두고 한남대 경제학과 3학년에 편입학했다.

박 대표는 다른 플랫폼과 달리 발품을 직접 팔아 품질관리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좋은 제품을 공급하기위해 해외 현지를 직접 방문하고 국내 손꼽히는 업체를 통한 가공을 진행하는 등 좋은 품질 개발을 위한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식자재 판매 데이터를 구축해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재고 없이 제품을 소진할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려 한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작에서도 한국의 전통 나물을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국제 플랫폼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화 ‘서울의 봄’으로 핫플레이스 된 한남대, 영화 촬영은 계속된다.

촬영만 하면 ‘흥행’,
1000만 관객 · OTT드라마 1위 등

올해 초 아름다운 캠퍼스로 유명한 한남대학교가
영화 관객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치렀다.
한남대학교 캠퍼스가 관객수 1300만명을 동원한
영화 ‘서울의 봄’의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핫플레이스’로 각광을 받았기 때문이다.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정우성 배우가 사범대학 잔디밭에서 본관을 배경으로 촬영한 셀카를 SNS에 올리면서 관객들의 관심을 집중시켰고, 촬영장소 인증을 위한 관객들의 방문이 잇따랐다.

방문자들의 수요에 맞춰 한남대는 포토존을 설치하기도 했다. 정 배우가 촬영했던 본관을 배경으로 한 셀카 사진을 그대로 연출 할 수 있도록 설치했으며, 촬영장 당시의 모습과 영화 정보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안내판도 설치했다. 포토존 설치 이후 학교를 찾은 방문객들은 인증샷을 SNS에 올리면서 ‘서울의 봄 핫플 인증’ 릴레이가 이어지기도 했다.





영화 ‘서울의 봄’은 한남대 사범대학 잔디밭과 입구, 1층 로비 및 중앙계단, 탈메이지기념관 입구와 4층 강의실, 5층 계단 및 옥상에서 촬영됐다. 영화에서 한남대 사범대학은 ‘필동 수경사’로, 탈메이지기념관은 ‘특전사령부’로 선보였다.

1. 정우성 배우 개인 SNS
2. 한남대학교 사범대 서울의봄 세트장
3. 한남대학교 포토존에서 기념촬영 중인 학생들



한남대 캠퍼스에서의 영화 촬영은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됐다. 2006년 이병헌과 수애가 주연을 맡은 〈그해 여름〉이 촬영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5편이 넘는 영화와 드라마가 한남대에서 촬영됐다.

특히 인기를 끄는 곳이 대전시 문화재로 지정된 한남대 선교사촌이다. 선교사촌에서는 영화 〈덕혜옹주〉(2016), 〈살인자의 기억법〉(2017), 〈정직한 후보〉(2020)와 드라마 〈마더〉(2018) 등이 촬영됐다. 배우 송중기가 주연을 맡은 영화 〈보고타〉도 선교사촌에서 촬영됐다.





이밖에 영화 ‘더문’(2023)과 ‘별빛이 내린다’(미개봉), ‘모범형사2’(2022) 등도 한남대에서 촬영했다. 남주혁 배우 주연의 OTT 드라마 ‘비질란테’는 OTT 시청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4. 영화 ‘정직한 후보’ 스틸컷(선교사촌)
5. tvN드라마 ‘모범형사’ 스틸컷 (한남디자인팩토리)
6. 영화 ‘세시봉’ 스틸컷 (사범대 잔디밭)
7. 디즈니플러스 드라마 ‘비질란테’ 스틸컷 (경상대학 강의실)

또한, 한남대 대운동장에서 ‘코리아’(2012), 학생회관에서 ‘변호인’(2013), 계의돈기념관에서 ‘1987’(2017)을 각각 촬영했다. 영화 ‘쎄시봉’(2015)의 야외 연주 장면은 사범대학 잔디광장에서 촬영했으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는 영화 ‘공기살인’(2022)이 56주년기념관과 중앙도서관 등에서 촬영했다.

영화 〈서울의 봄〉 촬영 이후
영화와 드라마 촬영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영화 〈모럴헤저드〉와
일본 넷플릭스 드라마 〈타임머신러버〉,
넷플릭스 드라마 〈약한영웅2〉 등이
이미 촬영을 마치고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 밖에도 MBC, tvN, 영화 등
3~4편의 촬영 논의가 진행 중이다.



중앙열람실 HUME L2을 소개합니다.

Hannam University Multi Spaces Central Library2

협업, 소통, 창의 공간으로 탈바꿈한 '중앙열람실'

한남대 중앙열람실이
협업 · 소통 · 창의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한남대 중앙도서관은 2023학년도 겨울방학기간동안
리모델링을 마치고 2월 19일 56주년기념관
3층 중앙열람실에서 자유학습공간 'HUME L2
(Hannam University Multi SpacE Library2)'
오픈식을 개최하고 변신한 공간을 개방했다.


1


2


3

1.
도서관 열람실,
교육연구 학습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스마트 도서관 서비스 제공과
개인학습, 협업공간을 확대했다.

2.
협업을 위한 세미나
휴식공간

3.
식음료가 가능한
커먼룸

4.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룸

5.
학생들의 커뮤니티 공간인
소셜존

6.
과제수행과 온라인 학습,
화상회의가 가능한
협업룸


4

'흄(HUME)'은 폐쇄형 열람실을
오픈형으로 배치하고 노트북, PC존,
1인 영상학습실 등 개인학습존으로
구성된 드림룸과 집중 개인 열람실로
이용할 수 있는 퍼스널룸이 마련돼 있다.

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룸,
과제수행과 온라인 학습, 화상회의가
가능한 협업룸도 첨단 시설로 들어섰다.

식음료가 가능한 커먼룸,
학생들의 커뮤니티 공간인 소셜존 등
학생들이 도서관 열람실 이용뿐 아니라
협업을 위한 세미나 공간, 휴식공간,
식음료 공간까지 마련되면서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한남대 중앙도서관은
이번 중앙열람실 리모델링으로
교육 · 연구 · 학습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스마트 도서관 서비스 제공,
개인학습과 협업공간 확대, 복합문화공간 조성,
쾌적한 학습공간 조성 등을 기대하고 있다.

학생들은 열람실의 기능과 함께
휴식과 협업도 가능한 복합문화 공간의 변신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5


6

도서관 관계자는
"우리 중앙열람실이 지역사회의
핵심 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산학협력을 위한 지식정보 서비스 강화를 통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창업명문, 취업명문 꿈꾸는 한남대

2024 '취 · 창업 페스티벌' 개최, 취업과 창업 정보 한자리에

4월 '취 · 창업 명문대학'으로 손꼽히는 한남대학교 캠퍼스에 취업과 창업을 위한 다양한 정보가 가득한 대규모 행사가 열렸다. 대전권 대학 취업률 1위와 창업 명문이라는 타이틀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행사였다. 인사례 교양동과 린튼기념공원, 메이커스페이스, 무어 아트홀 등 캠퍼스 곳곳에서 취업, 창업 관련 각종 전시와 정보제공, 홍보,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재학생을 비롯한 지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다.

1 너의 봄 나의 봄 청:취 (청년, 취업과 취하다)



한남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24년 상반기 '너의 봄 나의 봄 청:취(청년, 취업과 취하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사례 교양동 앞에 전시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교과 프로그램과 교내외 유관 기관 사업소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8년간의 성과소개 등 다양한 전시를 비롯해, VR모의면접과 퍼스널 컬러, 지문 인적성검사 등 부스운영과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진행해 학생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특성화고교 진로취업 컨설팅, 금융권 취업 컨설팅 및 선배 멘토링 등도 진행했다.



일자리센터는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도시공사, 하나증권, JSL인재개발원, 제이엠커리어 등과 협업해 지역 우수기업 홍보, 취업한마당, 진로 취업프로그램, 수기 공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승철 총장은 "우리 대학은 창업중심대학 선정에 따른 창업명문으로, 취업률 1위 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는 만큼, 이번 행사를 통해 재학생이 많은 정보를 얻고 취업과 창업에 구체적인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2 2024 창업 페스티벌 BOOM UP



한남대 창업지원단은 지난 4월 8일부터 이틀간 '2024 창업 페스티벌 Boom Up'이라는 주제로 한남대가 창업중심대학 선정 이후 지역 창업문화를 확산하고, 창업 유망주 발굴을 위한 대학발 창업 발굴, 지역 창업 허브의 역할 수행 내용을 총망라해 선보였다.

2024년 창업중심대학 예비 · 초기 · 도약기에 선정된 총 7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창업기업 킥 오프(KICK-OFF)' 행사도 진행했다. 이날 이승철 총장을 비롯한 장호종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 성녹영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최충규 대덕구청장 등이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김인섭 생명시스템과학과 교수는 교수 창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 누적 기부액 3억 1957만원을 '한남창업 기금'으로 전달했다. 또, 네이처허브 이기욱 대표와 ㈜디앤씨바이오테크놀로지 박성수 대표, ㈜미래디앤에스 이상환 대표 등이 우수 창업기업으로 선정돼 창업진흥원 장상을 수상했다.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교수창업과 학생창업과 관련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한남대 내 린튼기념공원, 메이커스페이스, 무어아트홀 등의 공간에서 창업을 테마로 한 '창업동아리 성과전시, 플리마켓, 창업 멘토링, 창업장학금 홍보, 포토부스, 3D펜 체험부스' 등의 약 40여 개의 부스를 설치해 '창업 명문'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Consumer Electronics Show,

한남대, 세계 최대 규모 ‘소비자 가전 전시회’ 돋보이는 성과



1

한남대학교가 세계 최대 규모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소비자 가전 전시회 (Consumer Electronics Show, CES 2024)’에서 돋보이는 성과를 보이며 돌풍을 일으켰다.

CES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월 12일 막을 내렸으며, 전 세계 150여 개 국가에서 13만5000여명이 참여했다. 4300여개 참관사와 1400개 이상의 스타트업 기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한남대는 대전지역 대학 연합 산학협력 협의체 (한남대, 건양대, 한밭대, 대전대, 목원대, 우송대, 충남대)와 함께 CES에 참여했다. 특히 한남대 가족회사인 ㈜메타뱅크와 창업중심대학 초기창업기업인 ㈜디앤씨바이오테크놀로지가 참여해 CES혁신상 수상과 240만불 상당의 투자 상담을 진행해 주목을 받았다.



2

1 교원 창업 ㈜메타뱅크, 현지 뜨거운 호평

㈜메타뱅크는 3D모델 복원 소프트웨어인 ‘메타비전’과 ‘메타360’기술로 8개국 35개 기업과 상담을 진행하는 등 현지에서 뜨거운 호평을 받았다. 캐나다 소재 타이어 기업 제품 3D 모델 복원 솔루션 도입 관련 협의, 중국 소재 거울 제조 기업 360도 회전 인터랙션 제작 솔루션 도입 협의 등 굵직한 협상이 진행됐다.

㈜메타뱅크는 한남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로 교원 창업(미디어영상학과 소요환 교수)을 통해 설립된 스타트업이다. 3D 모델 복원 솔루션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환경 구축 등 이와 관련된 다양한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2 CES혁신상 수상한 ㈜디앤씨바이오테크놀로지

요(소변) 화학 분석기의 혁신기술을 선보인 ㈜디앤씨바이오테크놀로지는 영예의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디앤씨바이오테크놀로지는 소변검사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차세대 요 화학 분석기(Urine Check-IT)를 선보였다.

혁신상을 받은 ㈜디앤씨바이오테크놀로지의 요 화학 분석기는 전 세계 의료현장에서 시행하는 기존의 소변검사 방식의 오염과 감염, 검사 과정의 불편함을 원칙적으로 차단해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의료 인력 낭비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업체는 미국, 일본 등의 기업과 240만 달러(약 30억 원) 규모의 투자 계약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남대는 창업 중심대학으로 선정된 이후 85개의 기업체를 선정해 다양한 창업지원을 해왔다. ㈜디앤씨바이오테크놀로지도 한남대가 2023년 초기창업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중 하나로 창업 활동에 필요한 인건비, 홍보비 등 1억5000여만원을 지원했다.

한남대 원구환 LINC3.0사업단 단장은 “전시 참가를 통해 대학과 기업이 글로벌 진출을 공동 모색하는 산학협력 성과를 얻었다”며 “글로벌 표준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이 지역 혁신기업인 ㈜메타뱅크에 취업으로 연결되는 등 선순환 사례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3

1.
한남대는 CES 전시회에 참가해 혁산상 수상과 240만불 상당의 투자 상담을 받으며, 현지에서 뜨거운 호평을 받았다.

2.
2024 CES 박람회 학생 활동 경진대회에서 한남대학교 학생이 대상을 수상했다.

3.
소변검사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차세대 요 화학 분석기(Urine Check-IT)를 선보인 ㈜디앤씨바이오테크놀로지는 영예의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CES 2024



자유전공학부 24학번 새내기
이민서 학생

School of Open Major

주목받는 우리학과 '자유전공학부' 자랑

자유전공학부 새내기 이민서 학생이 소개하는 우리학과는?

"아직 전공을 정하지 못했다고요?
어떤 전공이 있고
흥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런 친구들이라면 자유전공학부가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자유전공학부 새내기 이민서 학생은 자유전공학부 선택을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막연히 생명과학분야에 관심이 많고 좋아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학과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깊었던 민서 씨는 기본 전공과목을 수강하고 4개분야 트랙가운데 생명과학 분야 트랙을 선택해 전공 관련 수업을 듣고 있다.



처음에는 학과가 없으면 소속감이 없어서 대학 생활이 불안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주어진 자유는 더욱 다양한 수업과 전공을 자유자재로 세팅할 수 있어서 재미와 흥미가 컸다. 생명과학 분야를 다루는 학과의 전공이면 학과와 상관없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부분도 큰 메리트였다.

"사실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지 못하고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오는 경우도 많아요. 자유전공학부를 통해 다양한 전공 분야를 접하고 많은 정보 속에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어서 전공을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은 정말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민서 씨의 답변과 같이 실제 한남대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재학생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단과대학이 자유전공학부였다. 자유전공학부는 80.9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스마트융합대학, 린튼글로벌비즈니스스쿨 순으로 종합만족도가 높았다.

한남대 자유전공학부는 2017학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한 독립학부다.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사회환경의 변화는 미래의 직업과 직결된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수험생들에게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자유전공학부는 신입생들이 입학 후 1년간 대학 적응, 전공과 진로탐색 과정을 거쳐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보다 신중한 자세로 전공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자유전공학부은 다양한 전공 분야를 접할 수 있고 많은 정보 속에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어 전공 결정을 하지 못한 학생에게 정말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1학년 1학기 교양필수 수업과 계열 기초수업을 듣고 4가지 트랙 가운데 계열을 선택해 1과목 이상 이수해야 한다. 계열선택 과목은 희망선택 전공에 따라 지도교수의 상담을 거친 후 진로 트랙 중 하나를 선택해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자유전공학부는 ▲일반공학 ▲화학 및 바이오 ▲IT관련 ▲인문 · 사회 · 경상계열 등 4개 트랙이 제공된다. 정보를 얻고 필요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교과목(자기계발과 미래설계)과 다양한 분야 지도교수들의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전공선택은 학생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특수 교육과정인 사범대학 소속 학과와 간호학과를 제외한 어떤 학과도 선택이 가능하다. 전공을 배정받은 후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시 전공을 변경할 수도 있다.

